

# 단체장·교육감 ... 10·28 재보선 판 커지나?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또는 2심 선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포함해 현재 재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34명 가운데 15명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오는 10·28 재보선의 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실시 예정인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항소 또는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단체장은 모두 7명이다.

13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모두 4명이다.

항우 모임 소속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전국서 광역 1·기초 30·교육감 3명 재판 1·2심서 17명 직위유지, 15명 당선무효 위기 노회용 청장, 유두석·김철주·김성 군수 포함

### ■ 호남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등 재판 현황

구분	1심	항소심	상고심	비고
광주	노회용 동구청장	①벌금 200만원 ②징역 2년 및 벌금 6천만원	진행중	
	유두석 장성군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진행중	
	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200만원	진행중	
전남	김성 장흥군수	벌금 90만원	벌금 500만원	진행중
	황정수 무주군수	벌금 80만원	항소 포기	직위 유지 확정
전북	심민 임실군수	벌금 80만원	항소 포기	직위 유지 확정
	박경철 익산시청장	벌금 500만원	진행중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기자에게 돈을 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성 장흥군수는 2

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당선은 무효될 위기에 처했다.

노회용 광주 동구청장은 두 차례 기소돼 첫 번째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거법 위반 외에 뇌물 혐의까지 받은 두 번째

사건에서는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단체장은 광역 1명, 기초 30명, 교육감 3명 등 모두 34명이다.

이 가운데 17명이 1심 재판, 15명이 2심 재판까지 마쳤으며, 2명은 1심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심 재판을 마친 32명 중 17명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고, 15명이 당선무효 등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은 17명 중 7명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다.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일부 단체장의 1·2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이들의 오는 10월 28일 예정된 올 두 번째 재·보선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재보선 선거구에 포함되려면 해당 단체장들의 상고심이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현재 2심인 항소심을 끝내고 최종심인 상고심을 앞둔 11명 단체장의 경우 9월 이전에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6명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의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

소속의원 징계 사례 드물고

위법행위 있어도 회부 안해

전남도의회 등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소속 의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가 있는 의원조차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013년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물세례를 한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지금까지 단 1차례 회의를 가졌다. A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2008년 사회복지법인 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B 의원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성폭력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오다 함께 징계에 회부된 C의원에게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시켜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이나 골프 외유 등 광주시의회 및 전남도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이어졌으나 이후 윤리특위가 열린 적은 거의 없었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인

천시의회는 제4대였던 2005년 6월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든 이후 현재까지 윤리위에 넘겨져 징계를 받은 의원이 없다.

위원회를 만들 당시 윤리강령 개정 등을 위해 3차례 회의가 열렸을 뿐, 현재(제7대)까지 윤리위가 열리지 않았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9대 때(현재 10대)부터 윤리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2013년 2월과 지난해 6·8월 등 3차례 회의를 열어 도의원 행동강령이나 운영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을 뿐 징계 등을 결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회도 2013년부터 윤리위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회의가 열린 적은 없고, 전남도의회나 울산시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의회 가운데는 사법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루거나 윤리위에 넘겨져 법한 행태를 보인 의원이 윤리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 다루는 기준이 '윤리 규정 위반'인데 너무 두루뭉술하다"며 "사안별 징계 수위를 정해놓고 엄격히 적용해야만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화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이탈리아 고무회사 여수산단에 6700억 투자 이낙연 지사, 베르살리스와 협약

2박4일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중인 이낙연 전남지사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합성고무 생산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고기능성 합성고무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67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베르살리스(CEO 다니엘 페라리)는 현재 기업인 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과 1차로 여수산단에 SSBR(친환경 타이어 소재) 등의 제조공장을 설립 중이다.

이번 합작투자 협약을 통해 추가로 오는 2017년까지 SBS(완구·스포츠포용 소재), SIS(테이프 소재) 등 고기능성 합성고무 생산 라인을 건설해 고급 기술인력 등 모두 196명을 채용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지사와 다니엘 페라리 CEO, 허수영 대표, 주철현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이 지사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석유화학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고도기술을 가진 세계 굴지의 기업과 국내 기업 간 합작투자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왼쪽 첫번째)와 주철현 여수시장(사진 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살리스 본사에서 베르살리스·롯데케미칼과 여수산단에 고기능성 합성고무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총 6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지했다. <전남도 제공>

이어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45%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로,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만큼 해외 합작투자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다니엘 페라리 CEO에게 전남도도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추진 중인 기능성화학

소재 클러스터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과 관련한 베르살리스의 협력도 요청했다.

한편 이 지사는 12일 오후 불로냐시를 방문, 지오바니 몬티 레가룸 에밀리아-로마나 지부 회장, 김화진 전남협동조합연합회장과 함께 양 지역 간 협동조합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전남협동조합연합회는 에밀리아-로마나주 협동조합의 선진 모델과 성공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협동조합의 중요한 당면 과제로 부상한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청년·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인 교류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두달만에 강진서 AI

전남도, 오리 살처분 등 긴급방역 나서

구례서 3월 5일 마지막 발생

강진군 성전면 소재 종오리 사육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견돼 전남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12일 오전 1만 7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이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 검사 과정 중 AI 환원이 발견돼 살처분 조치됐다.

전남에서는 구례에서 지난 3월 5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50여 일만이다.

전남도는 즉시 가축 방역관과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또 죽은 오리 등 검사 시료를 추가로

채취,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결과 H5N8형 환원이 확인됐으며, 최종 정밀검사 결과는 2~3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에 가금 사육농장이 없어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축사 내외·진입로·주요 도로 등 소독을 강화하고, 오리농장에 입식 전·사육 중·출하 전 3단계 상시 예방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울 들어 무안, 나주, 구례 등 3개 시·군 20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지난 4월 20일 전남 전 지역에 대해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5 밝은광주인과 빛창 공모전

# 빛 드는 창에 사랑을 그린다

지역민의 눈 건강을 지켜온 밝은광주인과가 빛창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빛창 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짧은 글을 선정해 밝은광주인과 눈모양빌딩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시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b>공모일정</b>	<b>시상내역</b>
접수기간 : 2015. 4. 20 ~ 5. 13	대 상 (1편) 문화상품권 30만원
발 표 일 : 2015. 5. 15(금)	최우수상 (1편) 문화상품권 20만원
<b>접수방법</b>	우 수 상 (2편) 문화상품권 10만원
밝은광주인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best-lasik.co.kr	가 작 (10편) 문화상품권 3만원

**공모주제**  
사랑, 여름, 바다, 휴가 등  
문의 (062)351-9938

밝은광주인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